

남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탄력

인구감소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소아 진료 관심 지역' 지정... 국비 3억2000만원 확보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인구감소 지역이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 신설에 의해 국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는 민선 8기 공공사업으로 남원의료원 인근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이나,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어,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남원시는 지난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과 응급의료 취약지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 98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실태를 자체 분석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기준 신설' 특례를 발굴,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지침 개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20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남원시와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 지역인 78개 시군구는 '소아 진료 관심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비의 2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경증 환자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이용 진료비용이 8만

원~10만원인 반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용은 1만원~2만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의료 격차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간과 휴일에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는 물론 산후케어센터의 신생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호응'

남원시, 서민경제 안정·영세소상공인 활기

남원시가 서민경제 안정과 영세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며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일 현재 76,801명의 대상자 중 70,826명(92.2%)이 213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형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 제

한함에 따라 지역 골목상권으로 빠르게 돈이 순환되어 간단에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강상남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남원시의 사용처 제한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금으로 위축된 소비가 되살아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영세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지티지푸드, 간편식 '짜밥' 출시

순창군 생산농공단지의 신성장 기업(주)지티지푸드가 혁신적인 신제품 '짜밥'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삼각김밥의 불편함을 해소한 '짜밥'은 손쉽게 짜서 먹을 수 있는 독특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오픈 행사에서는 연일 완판 행렬을 기록하며 현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지티지푸드는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대파 등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쌀을 '짜밥'의 원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지티지푸드는 올해 하반기에 20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2026년에는 '짜밥' 전용 공장 증축



을 통해 식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을 아우르는 종합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한편, (주)지티지푸드는 지난해 3월 생산농공단지내에 딱딱비 전문 생산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1년 만에 새로운 제품과 생산라인 증설,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는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푸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 걸음을 이어갈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연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완료

30% 이상 연료비 절감 기대

순창군이 지난 4일 구림면 연산마을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료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의장, 연산마을 주민 150여 명을 비롯해 군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산마을 전체 130가구 중 91%에 해당하는 1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공급 배관 3.69km를 매설하고, 소형 저장용 탱크 2기를 설치해 안정적인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23년 10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립체육관 뒤편을 소형저장탱크 설



순창군이 지난 4일 구림면 연산마을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료 공급을 시작했다.

치 부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약 5개월 만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의 완료로 연산마을 주민들은 기존 난방유 대비 3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점화 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정산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산마을 주민들이 취사와 난방에 드는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

임실군이 3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대상자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당 지원금은 연 14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만원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발급과 재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재충전되어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10일부터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만 60세부터 70세(1955년~1965년생) 사이의 시민 중 선착순 2,000명에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오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거주자는 지정된 검사일에 각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0개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지역 희망자는 남원시 의료원을 직접 방문, 치매인지 선별검사(CIST)와 혈액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는 무료로 남원시가 전액 부담하게되며, 자세한 문의 또는 신청은 치매안심센터(620-7706)로 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남원시보건소가 평상시에도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개발한 모바일 치매 예방 교육용 앱 '기억하리'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열린 공유 스튜디오 운영

남원시가 2월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 스튜디오는 시청 지하 1층에 있으며, 방음시설과 크로마키,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로, 카메라와 편집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동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 제작 공간이다.

남원시는 미디어 제작 스튜디오를 업무에 이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면 개방 운영을 진행하며, 이용을 위한 예약은 공공개발자원 포털 '공유누리' 누리집(eshare.go.kr)에서 가능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발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로, 공공자원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공유누리 누리집을 비롯한 앱을 통해 검색·확인·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강진파출소, 현금인출기 위휴대폰 노린 절도범 검거

임실경찰서 강진파출소(소장 이성일)는 지난 1일 밤새론 추적수사로 덕치 농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휴대폰(현금 포함) 등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이 든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다시 와보니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분석으로 유리문에 반사된 용의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CCTV 관제센터에 차량 이동동선 역추적을 의뢰하여 차량번호를 특정, 면허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용의자 인상착의 대조 후 동일인으로 확인된 피의자를 절도 발생 24시간 이내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실=진홍영 기자